

행복 일터

Intro

Think about safety

희망 일터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야, 너두 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악덕 업주, 거기 섰거라! 현대판 홍길동 모범택시가 나간다!

월간나





표지이야기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향해 점핑 점핑!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53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행복 일터



04 Intro

Think about safety

08 System

산재근로자 여러분, 걱정말아요 그대

12 Plus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장님들의 노력 함께 돕습니다!

16 Post

이제는 특고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어요

18 People

<랜선 노동법> 시즌2 이주영 노무사 X 이승연 노무사 약은 약사에게 노동법은 노무사에게

희망 일터



26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야, 너두 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 - 멋쟁이사자처럼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기관 K-Digital Training 우수 혁신훈련기관

30 인생 2막

군인에서 글 쓰는 사회복지사로 - 류두희 사회복지사

34 굿&굿 오피스

일과 삶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다 - (재)아름다운가게

38 청년꿈터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날다 - 정해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42 내일잇슈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44 고용노동 뉴스





힐링 일터



58 미디어 속 노동읽기

악덕 업주, 거기 섰거라! 현대판 홍길동 모범택시가 나간다!

62 JOB툰

행복하게 돈 법시다 상쾌한 출근길을 위하여

64 직장탐구생활

일의 우선순위 매기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66 고민타파

일터에서 마주한 아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70 저녁이 있는 삶

나도 해볼까 유튜브! 유튜브 채널만들기 A to Z

72 직장인 건강상식

Shall We Dance?

74 주말에 뭐 할래?

6월 영화·도서·전시 추천

80 #내일스타그램

월간내일 독자들의 사연

82 애독자 퀴즈







산업재해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큰 사고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죠. 출퇴근길이나 출장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부터, 반복 업무로 인해서 상한 손목이나 정신적인 질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업무 중에 많은 산업재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현장의 안전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지킬 수 없죠. 근로자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안전한 업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주와 국가의 인프라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일터에서 더 많은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마주한 아픔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돕기 위해 업종별 재해예방,

유해작업환경 개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또 산업재해를 당한 가족들의 삶까지 보살피기 위해서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낯설게 느껴지는 산업재해에 대해 어떤 것들을 짚어보아야 할까요.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정책들을 함께 알아봅니다!





행복일터 System

산재근로자 여러분,

걱정말아요 그대

갑작스러운 산업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의 부상이나 질병에 노출된 산재근로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대상 |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 ~제12급 산재장해인

※ '21,2,1.부터 급여 신청기간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산재장해인(제 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까지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하죠. 각각의 훈련수당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조하세요.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직업훈련비용	업훈련비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은 1인당 6백만 원 한도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예산사업은 최저 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산재 근로자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최고지급액 500만 원 범위 내로 지원하는데요.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학 예정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선발시점부터 졸업까지(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지원됩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이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 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에 한정)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대상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 비용과 대상자 선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자율은 연리 1,25%로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총한도		세대상 2,000만 원 한도
명목별 한도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 원 이내
	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사업자금	각 1,500만 원 이내

-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사업자금·주택이전비:수시접수
- * 차량구입비:월 2회 선발(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 *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대상 |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 진단 실시 근로자

8대 광업 즉, 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 관련 업계에 종사하거나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가 지급된 광업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제도입니다.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정기·이직자·정밀건강진단비용) 및 부대비용(진단수당·이송료)을 지급합니다. 사업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 정기·임시 및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 제1차 건강진단 및 제2차 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사업주) 이직자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고용노동부)

- 흉부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건강진단 비용 청구 (건강진단기관) 진단수당 및 이송료 청구 (수검자)

- 건강진단기관은 진폐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건강 진단 비용 청구
- 수검자는 제2차 정밀건강진단 기간 동안의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청구

진폐재해위로금

대상 |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 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20,11,21 이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시 장해위로금 차액을,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장님들의 노력 함께 돕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노동부는 사업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산재 예방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지원되며, 융자 신청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확인, 투자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기술지원하고, 융자금 지급 대상자(우선순위)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또 융자 지원 이후 융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합니다.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사업장 (제조업 50인 미만, 건설업 120억 원 미만,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중심)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업종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여, 사망사고 및 중상해(휴업일수 90일 이상의 부상) 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0117 #11	사고사망자가 다발하는 핵심 고위험요인* 보유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기술지도(패트롤점검 등).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지으시하기 다들이는 역담으로 함함으로 모두 사람이 모든 단물인이에 데이어 기울시고(페트클립답 6), 의험성평가 등 다양한 산재예방활동 전개
집중관리	*건설업 떨어짐, 제조업 끼임 등 사고사망자 다발요인 및 사회적 관심 사항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위험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위험 특성에 맞는 사고성재해 예방활동 지원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 현장 모니터링
	재해가 다빌하는 조선업 등 특수 업종, 산재취약계층(장년,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 전개 등
법정 위탁사업	화재·폭발위험 및 유해·위험물질 제조·취급설비를 보유한 화학공장 등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확인(산안법 제44조)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산안법 제42조)
	종합건설업체(약 13,000개소) 및 주요 공공 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산안법 제4조, 제8조)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생협력프로그램」 및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구축지원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 개발 및 보급 등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지원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TEL.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근로자 건강보호

대상: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한 적시대응,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활동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업성질환의 업무관련성 규명, 안전보건서비스 기관의 신뢰성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 위험성 평가 및 정보관리를 통해 근로자와 업무상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설치 · 운영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 상담 등 기초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인자별·시기별·지역별로 발생되는 산업보건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컨설팅 및 인증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노출되는 영세사업장 옥외 근로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고객응대 종사자 보유 사업장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질병과 작업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질환의 발생 원인 규명 및 대책 제시 특수·진폐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를 통한 민간기관의 진단· 분석 수준향상 및 신뢰성 제고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및 독성시험을 통해 화학물질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여 노동자 건강보호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시험·평가를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국내 화학물질·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받고, 대체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을 통하여 국가주도의 국내 유통 화학물질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TEL.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 도급인의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 · 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점검과 지도, 산재 현황 집계 및 분석, 확정 및 공표 등을 통합 관리합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 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10% 산재보험료 할인 ①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②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복 할인 적용	
재해예방활동 인정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노동시간 조기 단축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21.6.30까지	
산재보험료 인하율	보험료 인하율 위험성평가 인정 : 20% / 사업주교육, 노동시간 조기단축 : 10%	
인정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TEL,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또는 시험 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호장치ㆍ보호구의 안전보건 성능 향상을	* 사업장당 5,000만 원
위한 제품설계ㆍ연구개발 등의 비용	(소요비용의 60% 한도)지원
제품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 사업장당 5,000만 원
시험장비 구매 비용	(소요비용의 50% 한도)지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취득 또는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한 방호장치 · 보호구를 제조하는 국내 사업장
- * 최근 2년간 인증취소 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또는 제품 수거ㆍ파기 사례가 없는 사업장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적합 판정 사업장
-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TEL,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TEL, 044-202-7689)

글 편집실

이제는 특고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의 보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촘촘하게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어떤 사람들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만큼의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직종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직종(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간 산재보험 사각지대로 생각되어 왔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일괄 재적용됩니다.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해줍니다!

재해위험도, 보험료부담 등을 고려하여 택배기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도 1년간 경감(30~50%)할 계획으로 그간 특고 관련 보험관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대상으로 특별자진신고기한을 운영하여 기한 내 자진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최대 3년)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글 권찬미 | **사진** 박찬혁

<랜선 노동법> 시즌2 이주영 노무사 X 이승연 노무사

약은 약사에게 노동법은 노무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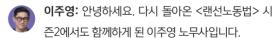


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동법을 짚어서 쏙쏙 알려주는 고용노동부 유튜브 콘텐츠 <랜선 노동법>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 '근로자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산업재해! 이 영상 하나면 산재보험 클리어!' 라는 첫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분에게 산업재해와 보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두 노무사를 만나봅니다.





Q_ <랜선 노동법>에서 활약 중인 두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사연을받고 랜선으로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윌건내일 독자들에게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승연: 새로 합류한 뉴페이스 이승연 노무사입니다. 이제 막 두 번째 방송을 촬영했는데요. 어려운 노동법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고용 노동부 유튜브 채널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Q_ 최근 영상에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셨어요. 윌간내일 6월호의 주제도 '산업재해 예방'인데요. 두 분께서도 평소에 산재 관련 상담을 많이 하고계신가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영: 산업재해도 굉장히 상담 범위가 넓은데요. 주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다가 승인이 나지 않아 서 재심사 접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이승연: 중대재해법 통과 등으로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에 대한 기업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산재 상담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산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 또한 산재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상담이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재해는 보통 과로에 기인하고 있어요.

Q_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특수한 케이스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현업에서 느끼기에 어떠신가요? 관련비중의 상담도 많이 늘었나요?

이승연: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특종 업종의 분위기는 분명히 느껴져요. 의료보건업의 경우 갑자기 근로시간이 급증하여 과로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또 코로나19로 배달량이 폭증하면서 배달 업종 근로자 분들이 운전 도중 뇌출혈로 쓰러지시거나, 자택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_ 산재는 어쩐지 어렵게 느껴져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막상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당황하면서 허둥지둥하게되는 것 같아요. 산업재해 발생 시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주영: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산업재해가 회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2018년부터 회사의 허가나 날인이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수령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죠. 산재의 경우 초진 진료 시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잘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의사에게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근로자 개인이 전산상으로도 쉽게 산재 신청을 할수 있지만 어렵게 느껴진다면 공인노무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특종 업종의 분위기는 분명히 느껴져요. 의료보건업의 경우 과로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mathbf{Q}_{-} 산재 재해도 종류가 있다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승연: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업무상 사고는 말 그대로 업무를 하던 중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추락, 전도재해, 화상 등의 유형이 있고 외상에 의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편이죠. 출퇴근할 때 교통사고가 나거나 넘어져서 심하게 다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업무상 질병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 회전근계파열 등 근골격계 질환, 석면 등에 의한 진폐증,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암, 과로나 반복적인 동작, 무거운 짐의 반복적인 이동, 반복적인유해물질의 접촉 등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Q_ 최근 영상에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산재보험에서의 업무 연관성 증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요하게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주영: 업무상 사고는 말그대로 업무 시간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라 크게 증명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 시간 중 사업장을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나 출장 중 출장지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등의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못하여 산재가 불승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승연: 특히 질병재해의 경우에는 과로나 업무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이를 산재 보상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같은 질병재해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별도 기관을통해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면밀한 법적요건을 검토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산재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마세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각 질병 종류마다 주요하게 판단되는 기준이 다른데요.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발병 직전 12주의 근무시간기록, 발병 직전 24시간

동안 업무관련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사고가 있는지 여부, 발병 직전 1주 간의 업무량 30% 이상 증가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기록이 필요합니다.

Q_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승연: 수술비, 재활치료, 통원치료 등에 대한 요양비가 지급되며, 요양 기간 및 이후 치료가 끝날 때까지 휴업급여가 매월 평균임금의 70% 지급됩니다. 또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받아 연금 또는 일시금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재해자가사망한 경우라면,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재해자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만큼 배우자 사망 때까지 지급되고 장의비 또한 지원됩니다.

Q_ 많은 분을 만나실 텐데 혹 기억에 남는 산재 상담 시례도 있으실까요?

이승연: 저는 젊은 영업사원이 휴일에도 밤낮없이 근무를 하다가 집에서 쓰러져 혼수상태로 입원한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당시 과로에 대한 입증을 해내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입증이 되어 산재 승인을 받고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었죠.

이주영: 아파트 경비원이자 주차 관리인으로 근무 하던 분이 폭행에 노출되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신과 기록과 업무 연관 관계를 입증해내어서 결국 산재 승인을 받았던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Q_ 더 건강한 일터를 위해서 사업주와 노동자 양측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갈등 사례를 보시 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영: 산재 보험이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 셨으면 합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도 너무 은폐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폐는 범죄이기도 하고요.

공인노무사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고,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다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노무사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승연: 산업재해에 대한 노사간의 협조가 '당연한 것'이라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로자는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고 인정을 받고,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이 더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 당연하게 노력하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_ 마지막으로 전국의 일터에 계신 근로자분들을 돕는 동반 자인 노무사로서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주영: 산업재해는 사후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이전에 미리 노무사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근로자분들이 과로하지 않으시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찾으셨으면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승연: 노동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일 터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 잖아요. 공인노무사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고, 함께 해결했으 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 <랜선 노동법>을 통해서 더 많은 노동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Hopeful

+

就加工地型型217年11年

- **26** 야, 너두 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
- 30 군인에서 글 쓰는 사회복지사로
- 34 일과 삶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다
- 38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날다
- **42**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 44 고용노동 뉴스



야, 너두 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

멋쟁이사자처럼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기관 K-Digital Training 우수 혁신훈련기관



2020년 말 코로나19의 창궐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던 때. 마스크 알리미라는 서비스를 고안하도록 돕고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뾰족한 전문성과 선한 영향력으로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IT 교육 기업의 황제 '멋쟁이사자처럼'을 만나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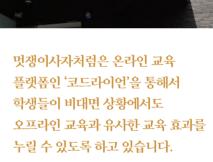
#LIKE LION

무성한 갈퀴와 카리스마 있는 눈빛, 어슬렁거리는 동작이 언뜻 게을러 보이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밀림 의 황제. 사자를 생각하면 흔히 떠올리는 모습이죠. 하지만 밀림 이 아닌 대한민국에도 도심 한가운데도 요즘 잘나가는 사자가 있습니다. 바로 강남대로에 말이죠. 멋쟁이 사자의 형상을 떠올 리며 찾은 곳은 강남구 삼성동. 빌딩숲 사이로 '멋쟁이사자처럼' 이 담대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업자이신 두희님께서 백수인 시절에 떠올린 네이밍이었어 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는데요. 백수의 왕은 사자니까 이런 이름을 지어서 강제로라도 멋져지자라는 생각으로 만든 단체였다고 해요. 시작은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래밍 기 술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였죠." 취재진을 환대하며 안내해준 공동창업자 나성영 이사가 말했습니다.

올해로 8년 차가 된 '멋쟁이사자처럼'은 2013년 창립된 프로그 래밍 교육 회사입니다. 창립 이후 '내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실 현한다'는 기치 아래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UCLA 등 전 세계 130여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8년간 멋쟁이사자처럼의 교육 과정을 들을 대학생은 전국각지 약 1,500명. 지금까지 약 8,4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멋쟁이사자처럼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코드라이언'을 통해









'멋쟁이사자처럼'은 성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배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내도록 하죠.





성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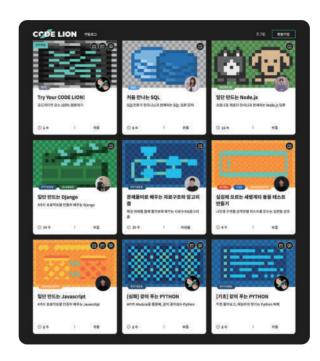
#With_K-Digital Training

'멋쟁이사자처럼'은 성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배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내도록 돕고 있죠. 소방출동지도나 메르스 맵, 코로나19 마스크 알리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사회공헌아이디어였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뒤 수강생들이 IT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직접 창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소설닷컴, 탈잉, 윙잇, Beproll 등 의 스타트업이 수강생들이 창업한 기업입니다."

'멋쟁이사자처럼'의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은 최근 고용노동 부와 함께하는 'K-Digital Training'으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인 재 19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한 'K-Digital Training'의 혁신훈련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더 많은 분이 프로그래밍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책 지원 이 되는 인공지능 통합과정은 700만 원 상당의 훈련비가 소요 되는 교육과정인데요. 해당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으면서 참여 자의 훈련 만족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프로그래밍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꿔보세요

#HACK_YOUR_LIFE

멋쟁이사자처럼의 우수한 양질의 훈련 시스템과 이념, 사회적 영향력 덕분일까요? 멋쟁이사자처럼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 광부로부터 '이달의 한국판뉴딜'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이를 동력 삼아, 'K-Digital Training' 혁신 훈련기관으로서 2021년 9월까지 360여 명의 AI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신기술 교육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에도 지사를 세웠으며 대구, 대전 등으로 지사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베트남에도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나날이 기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체감하지 만, 심리적 장벽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 런데 저희 교육 기관들이 하는 일이 바로 비전공자들도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거든요. 멋쟁이사자처럼은 언제 든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문 드리려 주시고, 함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판뉴딜

늘봄이's Advice K-Digital Training 더 알고 싶나요?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뉴딜(사람투자)의 핵심과제인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는 총 43개 혁신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서 3,600여명의 청년에게 디지털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8만 명까지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21년) 1.7만 명 → (22년) 2.5만 명 → (23년) 3.4만 명 → (24년) 4.4만 명 → (25년) 5.8만 명

K-Digital Training이 남다른 네 가지 이유

하나. 멋쟁이사자처럼, 프로그래머스, 네이버커넥트 등 청년 들이 가고 싶어하는 43개 혁신교육훈련기관·우수대학 등 참여

두울. 네이버, 마이리얼트립, 솔트룩스 등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 설계 지원

셋. 개인 맞춤교육으로 비전공자도 되고 싶은 디지털 현장 실무인력으로 성장 가능

넷. 청년들이 듣고 싶은 우수과정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

* 자세한 안내는 직업훈련포털(HRD-Net)과 각 교육· 훈련기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군인에서 글 쓰는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류두희 씨

커다란 세탁차를 몰고 마을 구석구석을 순회하는 류두희 씨. 몸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류두희 씨는 이들의 이불을 빨아주는 묵묵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꿉꿉한 이불을 세탁해주는 것뿐이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빨아줘서 고맙다'는 손편지를 받을 때 이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죠.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면서 고독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질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그로부터 인생 2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36년의 군 생활 마치고 사회복지사로

"저는 군인으로 36년간 활동했어요. 정확히는 '36년 8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한 후 육군준위로 전역했죠. 오랜 시간동안 군인으로 서살아왔지만, 전역 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군인은 정년이 55세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은퇴 고민을 해야하죠. 전역 5년쯤 전부터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수첩에 그림을 그리면서 잘하는 것,하고 싶은 것, 즐거운 것 등을 슥슥 그려나갔죠"

19세에 군에 입대한 후 30년이 흐른시간.그는 19세에 했던 고민들 을 50세에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떠올렸고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분야 에서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거든요.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갖고 있었어요. 헌데 좀 더 다양한 분야로 길을 열어 놓고 생각하자 싶어서 숲해설가, 직업상담사, 노인심리상담 등을 공부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경기 능사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이 때만 해도 숲해설가 쪽으로 마음이 점점 기울었어요 아이들과 숲에서 중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날, 류두희 씨는 계룡시청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공고를 보면서 '숲해 설가도 좋지만 사회복지사로 인생 2막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 않 을까'라는생각을하게 됐고 곧장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동세탁업무 담당자를 모집한다는 공고였어요. 2.5톤 이동세탁 차를 운전해 봉사자들과 동네 이곳저곳을 순회하며 장애인이나 독거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불 및 카펫 등을 세탁해 주는 일이었죠 이 일을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요 36년의 군생활을 하면서 나라에서 받은 만큼 나라에 뭔가를

혼자 사는 노인들 만나며 자연스레 시작한 글쓰기

보답하고 환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회복지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류두희 씨. 야심차게 시작한 이동세탁업무였지만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 다.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일도 어색했고 차량 내에 탑재된 세 탁기를 돌리는 일도 쉽지 않았죠.



군인으로만 살아갈 때는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알았을까요.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현재 조금이나마 뿌듯한 삶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2.5톤 탑차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대형운전면허를 미리 따 놓았다는 점이었어요.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차량의 기능을 몰라 쩔쩔매기도 했고 차량 내 부착된 발전기, 펌프, 순간온수기, 세탁기 4대의 기능을 익히느라 애를 먹기도 했죠. 특히 겨울에는 모든 장치의 물이 얼기 때문에 잊지 않고 물을 완전히 빼야 하는데 장비가 고장 나면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수리나 예방 정비 경험이 없던 저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죠."

이동세탁은 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 위주로 매주 2~3회씩 마을을 방문하고 마을회관 앞 으로 어르신들이 이불이나 카펫을 가져오면 세탁차에 탑재된 세탁기에 이불을 세탁한 후 각각의 가정에 널어주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집집마다 방문해 직접 이불을 수거해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동세탁업무를 시작한지 올해로 벌써 7년차. 류두희 씨는 7년의 시간 동안 자신은 이불만 세탁해줬을 뿐인데, 어 르신들께서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 왠지 모 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분들은 혼자 이불 빨래하는 게 쉽지 않잖아 요. 가끔 자식들이 방문해도 이불까지 빨아주고 가진 않죠. 사 실 쾌적한 이부자리가 삶의 질을 쾌적하게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때문인지 저희가 방문하면 무료로 세 탁해 주는 게 미안하다며 계란이나 고구마를 삶아 오시고, 어 떤 분들은 직접 재배한 채소들을 주기도 하세요. '이불을 빨아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손편지를 적어 건네시기도 하죠.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한편 그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고요."

세탁봉사업무를 하면서 류두희 씨는 할머니들이 한마디씩 던 져주는 이야기와 사연들,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자신의 솔직한 마음들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아간 문 장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다듬고 또 다듬는 과 정을 이어갔고, 어느 날 보니 자신이 쓴 문장들이 한 편의 글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글을 어딘가에 공모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마침 2018년 한국문학세상에서 주관하는 신춘문예에 도전했는데 감사하 게도 당선되어 등단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후로 꾸준히 글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수필집 『길은 있으리』를 출간했고, 2년 후인 지난 해 11월 『그대 있어 내가 있지』라는 두 번째 수 필집을 출간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받은 만큼, 사회에 나눠주고파

혼자 글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계간지 및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투고하며 수필 작가로서의 필모그래피를 꾸준히 쌓아 온 류두희 씨. 그가 고용노동부와 만난 계기도 공모를 통해서였습니다. 지난 2020년 말 노사발전재단에서 주최한 '신중년 인생 3막 우수사례 공모전'에 「군인에서 글쓰는 사회복지사로」라는 글을 공모해 입선하게 된 것이죠. "뭐든지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좀 더 나은 내일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를 이끌어 온 것 같아요. 글을 쓰게 된 것도 이러한 마음의 연장선이 이룬 결과죠. 하루하루 글을 조금씩

쓰다 보니 내 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왕이면 작가로 등단해 책을 출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공모전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노사발전재단에까지 글을 투고했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됐네요. 이런 걸 보면 삶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해요. 군인으로만 살아갈 때는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알았을까요. 그저 매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현재 조금이나마 뿌듯한 삶을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두희 씨는 인생 2막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던 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정기 회장의 도움이 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이 곳에 올때만 해도 사회복지사로서 이렇다 할 경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믿고 선택해 주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를 선택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덕분에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열수 있었어요. 과거의 저처럼, 은퇴후 삶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도전'하고 '준비'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미래를 계획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정년을 앞두고 '아직 젊은데무슨 일을 해야 할까' 막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좋은 일들이많이 있었죠. 앞으로 이 사회가 점점 더 고령사회로 접어들텐데 중장년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보람을 느끼는 일을 함으로써 사회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줘야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이동세탁봉사를 더욱 열심히 하고 싶다는 류두희 씨는 미래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인형국을 배워서 노인시 설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것이 었죠.

물론 글도 꾸준히 써서 2년에 한 번씩 수필집을 출간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 사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지속하고 싶다는 류두희 씨.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습니다.

응원합니다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류두희 님을 응원합니다!"

2014년 조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동모금회2부터 받은 세탁차는 운영한
사감은 찾다가 안게 된 휴무희 님.
항상 맡은 인데 떠서서 첫저낡고
어느신들은 공명하는 모습에 혼중한 사감은
만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60세가 안돼서
전역은 낡고, 어떤 인은 한 지 막막하기도
했은 텐데, 훈중하게 생으나 건물이 많은
본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나 생각합니다.
멋진 제告으는 봉사뿐만 아니나 군도 쓰면서
훈중한 인은 해 내가고 있는 휴무희 님!
항상 응원하며, 힘 닿는데까지

함께 열심히 근무합시다! 응원합니다

이정기 회장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희망 일터
 굿앤굿 오피스
 글강진우 | 사진 박찬혁



'공육'으로 이루는 동반 성장

(재)아름다운가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받아 전국의 아름다운가게 재사용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국내외 소외계층과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자사회적기업입니다. 자원재순환활동 20년차를 맞은 올해, 350여명의 상근활동가들이 사무처 및 재사용 매장110곳과 되살림센터 17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가게는 업사이클링(Upcycling), 공익상품사업, 공정무역, 나눔교육, 나눔장터, 사회적기업가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공익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만큼, 아름다운가게는 직원들의 행복 증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워라밸 실현과 자기주도적 성장이 가능한 제도를 적 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더 열심히, 더 즐겁게, 더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사팀 임지민 간사는 '공육제 도'를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청년 친화 복지정책 으로 꼽았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일과 삶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다

(재)아름다운가게

2002년부터 활발한 자원 재순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재)아름다운가게는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하죠. 아름다운가게가 일과 삶의 아름다운 조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내 여성 관리자 비율 65% 특별장기휴가(안식윌) 사용률 99% 남성 직원 출산·육아휴직 사용률 68%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때 '워라밸'과 함께 '이곳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가게는 일반적인 교육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공육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직원들의 발전을 공익적 가치 실현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내부교육, 국내외 연수 및 탐방 외에도 1년마다 100만원 이내에서 도서지원, 사이버 연수 또는 외부교육참여 등 본인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있는데요. 자기계발 독려와 지식공유를 위해 외부교육 참여시에는 연차 외 별도의 공육휴가까지 지원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더욱 녹습니다."

자율과 효율을 모두 잡은 근무·휴가제도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근무제도는 워라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아름다운가게는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와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다양한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 개개인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시차출퇴근제,육아 및 가족돌봄에 따른 단축근무제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외적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별도의 결재 과정을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인기가 높다는 것이 임지민간사의 설명입니다.



"직원들의 여가를 위한 휴가제도 또한 다채롭게 마련 하고 있는데요. 출산·육아휴직은 물론 가족돌봄 휴가·휴직 등 법정 휴가제도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가제도는 '특별장기휴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슬럼프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5년 근속마다 리프레시 휴가를 제공해 직원들의 업무 욕구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죠. 휴가 기간을 최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특별장기휴가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연차 사용에 있어서도 매우 유연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사용의 최저 기준이 '반차'인 반면, 아름다운가게는 1시간 단 위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 후에 갑자기 일이 생겨 급하게 연차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직원들 끼리 모이면 회사의 지원을 받으며 사내 소모임 활동 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꽃꽂이, 공예, 보드게 임 등 14개 소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이렇 듯 근무와 여가를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 가 활성화돼 있기에, 아름다운가게 직원들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좋은 직장'

아름다운가게의 여성 직원 비율은 65%입니다. 그래 서인지 출산·육아에 관한 휴가·휴직제도가 잘 마련 되어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출산 시 약 3개월의 출산 휴가가 주어지며, 남성 직원의 경우 1개월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주어집니다.

자신이 원할 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1년의 육아휴 가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남성 직원 또한 이와 동 등한 출산·육아휴가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함께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유아 시기에 직원과 자녀가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또한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직원들의 육아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아름다운가게의 노력은 대 외적으로도 두루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6년 고용노 동부의 '일가양득 우수기업'에 선정됐고, 2017년에 이어 2020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여가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의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임을 인정받았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 와 자부심이 높아졌고, 이는 더 좋은 일자리를 완성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직원들은 연차와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간사'라고 불리는데요.

직원들은 '간사협의회'를 통해 아름다운가게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다니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설명한 각종 복지제도 중 상당수가 간사협의회를 통해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기에, 아름다운가게의 근무 환경은 점점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모바일 플랫폼 구축과기후위기 대응 활동, 친환경 매장 오픈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욱 이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 하는 아름다운가게. 이들의 아름다운 행보를 응원합니다.

(재)아름다운가게의 일가양득 우수기업 선정 비결



매년 100만 원 이내의 자기계발비를 제공하는 '공육제도' 운영



남녀 불문 출산·육아휴직 제공

- 근속 5년마다 1~3개월의 특별장기휴가(안식월) 제공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가족돌봄 단축근무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도입



각종 사내 소모임 활동 지원



1시간 단위 연차 사용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정해윤 씨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날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하늘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항공업계 종사자이던 정해윤 씨도 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마음가짐이 그녀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평소 관심을 가지던 프리랜서 강사 아카데미를 수강한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강사로 거듭났습니다.

하늘길을 벗어나 찾은 새로운 길

정해윤 씨는 항공업계 종사자였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외국 항공사 사무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녀는 4년간 전 세계를 비행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항공사에서 '케이터링'이라는 특수 직군으로 기내식 계약 및 구매 업무와 승무원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기내식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을 꿈꾸게 되었는데요. 일에 대한 열정하나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00여개 기내식 센터를 보유한 회사의 한국지사 구매 파트장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은 항공업계 종 사자들에게 직격탄을 가했습니다. 하루에 준비하는 항공편이 평소 대비 십 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들자 직원들의 시름은 나날이 늘어만 갔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위기 속에서 정해윤 씨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환할 수 있을 지 고민했습니다. 때마침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모 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14년간 국내외 항공사를 거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었어요. 희망퇴직을 통해 위로금을 받고 그것을 발판 삼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나만의



경쟁력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제게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셈이에요." 퇴사 이후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유머 감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들었기에 '강사'라는 직업이 자신과 잘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사실 그녀에게 직업 강사는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던 오래 꿈이기도 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든든한 빽, 국민내일배움카드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던 날, 국민내일배움카드 공고문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정해윤 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구면인 사이였는데요. 과거 항공업계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이직할 당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컴퓨터 강좌를 무료로 수강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 그녀는 바로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신청하고 강사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강사양성 아카데미에 기쁜 마음으로 등록했죠.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수백만 원의 수 강료를 들여 스피치 아카데미에 다녔어요. 당시에 는 수익 창출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 해 항공업계와 같은 특수고용직군의 경우 강의 전 액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고민하던 찰나 에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제게 든든한 빽이 되어 확 신을 갖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정해윤 씨는 아카데미를 통해 기본적인 강의 이론과 체계적인 티칭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심리학 석사 강사님의 커뮤니케이션 강의와 대한항공 출신 강사님의 이미지 메이킹 강의 등은



가장 흥미로운 수업이었는데요. 현직 강사의 강의 기법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며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었기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를 관두고 나태한 생활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었는데 종로에 있는 커리어센터 원장님께서 항상 꼼꼼하고 친절하게 학생들을 관리해주셨어요. 아침마다 오지 않은 학생은 없는지, 오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수업에 빠지지 않고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끝까지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움과 희망으로 꽃피우다

아카데미 졸업 후 정해윤 씨는 본격적인 강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접한 강사 생활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신과 잘 맞는 옷이었는데요. 한 번 강의를 한 컨설팅 기업에서는 꼭 다시 연락이 올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까 제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어요. 제가 원하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고, 제 스케쥴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이 조화롭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 정해윤 씨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 아카데미 수강 시절 들었던 퍼스널 컬러 강의를 직접 대학 강단에서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겨울이라서 하나같이 검은색 롱패딩만입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컬러를 찾아주자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새 삶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 학생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죠.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꽃피울 수 있는 강사라는 직업을통해 정해윤 씨는 매일매일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행복과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자 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상상 하고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자기탐구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1순위가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최종 적으로 꿈꾸는 목표입니다."

<스피치 전문가's 꿀팁>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면접 합격 마인드

대학교 취업 스피치 강의를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면접 볼 회사의 정문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다.'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미 이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실릴 겁니다. 또한, 남들하고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장점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공헌할 수 있을지 자신감 있게 어필하세요.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준다면 면접을 성공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이대로 괜찮을까?



더 많은 해외 정책기자단의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ttns://blog naver com/molab.suda)를

(https://blog.naver.com/molab_suda)를 통해 확인하세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2018년 9월 일본 총무성 통계 국에 따르면, 일본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약 3,557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비율의 20%를 넘게 차지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UN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현재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속 하는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의 고령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높은 고령자 비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나이를 먹고 가족과 멀어지며 심각한 고독을 느끼거나, 퇴직 후 경제난을 겪는 노인들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인 범죄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감옥에서는 다른 수감자들과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쓸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끼니와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인 경범죄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출산율은 이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노인 평균수명은 늘어나 젊은이들의 고령층 부양에 대한 부담감 역시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일본은 초고령사회와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았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 직원을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

고령층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각 사업주에게 '65세까지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실시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 속고용제도'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고령자를 본인이 희망하면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재고용제도' 등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전에 이 제도의 대상자는 노사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정되었으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도 이후에는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이직이 결정된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 년층을 대상으로 구인활동을 돕는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도와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직원을 5명 이상 해고할 경우, '다수이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들은 노년층 고용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기 힘든 고령층을 배려해 단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등 고용형태를 더욱 다양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 바라는 이상적인 근무환경인데요. 나아가 고령층의 직업 분야도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년층 구직활동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

사업주들이 위와 같은 일들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돕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60세 이상의 무직자를 헬로 워크(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직안정기관) 등에서 소개받아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사업주들은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주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상담

65세 이상의 고령층 구직활 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고령· 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는 관련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 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어드바이저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원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중소기업 상담사, 사회보험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직접 면담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상담이 무료로 이뤄진다는 사실! 정년연장, 노년층 사원의 업무분담, 임금이나 퇴직금 제도 정비 등 고령자고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고민하는 사업주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주의 의뢰에 따라 노년층 직원의 취업 의식을 향상시키기위한 연수를 열기도 합니다.

'커리어 인재 뱅크' 사업 실시

'커리어 인재 뱅크'란 고용·노동 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정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열의를 가진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구인중개캠페인입니다.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66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를 수집해주고, 조건이 맞는구직자를 사업자에게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과 이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커리어 인재 뱅크에 등록자 정보를 등록하고, 기업은 뱅크에 구인을 신청한 후 등록된 등록자 정보를 통해 조건에 맞는 인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커리어인재 뱅크는 양측에 각각 기업·구인정보 제공 및 면접 일정을 조정하고 면접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이에서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이처럼 일본 정부는 노년층이 더욱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라는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 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 발짝을 이제 막 내디딘 셈입니다. 우리 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2025 년 이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해가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いらすとや https://www.irasutoya.com/



* 참고자료

- · 총무성 통계국 공식 홈페이지, 고령자 인구 통계자료 http://www.stat.go.jp/data/topics/topi1131.html
- 후생노동성 공식 홈페이지, 고령자 고용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 roudou/koyou/jigyounushi/page09.html
- · 후생노동성 공식 홈페이지, 《70세 고용추진 매뉴얼》, 54p https://www.jeed.go.jp/elderly/data/q2k4vk000000tf3f-att/ q2k4vk00003om56.pdf
- · 산업고용안정센터 공식 홈페이지, 커리어인재뱅크 http://www.sangyokoyo.or.jp/elder/index.html [출처] 4월 원고 수정안_김규리(해외)_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이대로 괜찮을까? (비공개 카페)

희망일터 고용노동 뉴스 글편집실

MOEL News

1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경덕 장관이 첫 행보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을 방문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지난 5월 10일 한국노동자총협회를 방문하여 위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위기극복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그간 노동기본권 보장, 취약분야 권익보호 강화, 중대재해 예방, 고용안전망 확대 등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노동 현장의 의견에 더욱 귀기울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취약 노동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지역과 기업 현장에서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노력에 앞장서 온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면서 포용적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노동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해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안경덕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집 중된 청년, 여성 등의 조속한 일자리 회복을 위해 기업과 경영계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중투자, 채용보조금 확대, 기업이 필요한 디지털인재 양성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노동법 시행 과정에 현장 기업들의 우려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만큼, 정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경영계도 최근 이에스지(ESG) 투자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맞추어, 노동자의 안전 등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 변화를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코로나 이후 노동환경 변화 대비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2

국민이 심사한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난 5월1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 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시스템」 구축사업) '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습니다.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주요 우수사례

「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 구축 사업

◈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

- · 수기로 이뤄지던 전화가입자 조회를 통신사와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및 통신사 자체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 디지털 방식의 큐알(QR)코드 처리방식으로 진행
- · 시스템 개선 후 통상 1일 내로 가입자 정보 조회 가능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한 중형고용센터 등 확충 사업

◈ 우수상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용·복지서비스!

새로 설치된 중형고용센터 30곳에서 1,778건 취업 성사('21.1~3)

- · 코로나19 2차 대확산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어려웠음에도 지속적인 설득과 유연한 업무처리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고용센터(30개소) 및 출장센터(40 개소) 설치
- ·설치가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센터가 확충되어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좀 더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3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 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 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종사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정책수요	법안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	» 서면계약원칙 및 주요내용(제5조, 제14조) » 표준계약서 보급(제31조) » 계약 변경·해지시 사전고지(제6조, 제17조, 제18조)
불공정거래 방지	 부당한 업무수행요구 금지(제15조) 책임의 부당한 전가 금지(제16조) 감독기관 신고 및 행정지도(제33조, 제34조)
경력 증명	▶ 플랫폼 기업의 경력증명의무(제7조)
일의 배정(알고리즘 등), 고객만족도 등 평가기준 등 공개	>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주요사항 변경시 이의제 기 절차 보장(제8조)
4대보험 적용	사회보험 적용원칙(제26조) 및 정부지원(제32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 자영업자로 오분류 관련 자문기구 운영(제3조) › 플랫폼기업에 노동법 적용 관련 자료 요청(제8조)



4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20일,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인 ㈜푸드나무를 방문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의 기업 참여 현황 및 현장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6월 본격 개시 전 기업·청년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푸드나무 김영문 대표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업이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 및 유지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기업의 채용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이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사업으로 기업이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 고용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현재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따른 고용안전망 확충 및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의 현실 개선에 도움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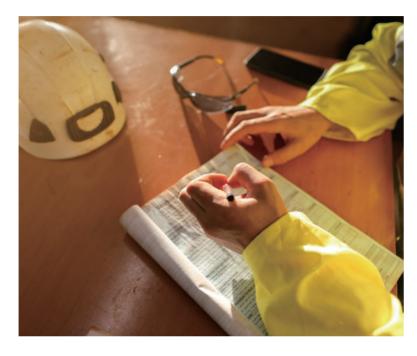
창출된 안정된 일자리를 바탕으로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미래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노동시장 밖 청 년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노사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 획이다"고 밝혔습니다.

-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및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시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9만 명, 6월 중 공고 예정)
- * (추)푸드나무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청년 디지털 일자리) 50명('20년 23명, '21년 27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청년내일채움공제) 69명이 공제 가입하여 27명이 만기금 수령(26명 가입 유지 중)
- * '21.4월 청년 고용 동향(전년동월대비) ▲고용률 43.5%(+2.6%p) ▲취업자수 3,832천명(+179천명)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25.1%(-1.5%p) 등



5

평택 사망사고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14일,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 신 고(故) 이선호 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조문 이후 유가족과 대책위 면담에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책임 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하겠으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TF를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마련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효과적으로 협업하도록 관계기관 TF를 구성했으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이 합동으로 전국 5대 항만 등을 대상으로 점검·감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고 컨테이너 관련한 안전작업수칙도 조속히 마련·배포하고 현장지도, 점검·감독 등으로 현장 안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지난 5월 14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방역상 황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직업 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관계자와 훈련수강생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방역 긴장 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직무능력 함양을 통해 국민의 취·창업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기관 관계자에게 시설소독,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인 환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훈련수강생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 (발열, 기침 등) 발현 시 대면 수업 참여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방역상황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서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방역상황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하이미디어아카데미인재개발원(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

고소작업대 끼임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 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12~'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②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합니다.

8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주)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17~28)했습니다.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총 46명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시행을 앞두고,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으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로구성된 안전보건시스템 특별분석반을 운영,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 감독에서의 지적된 사항과 안전보건시스템 분석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 (&#}x27;21.5.8) 원유운반선 용접작업 중 추락사, ('21.2.5) 대조립공장 철판에 부딪혀 사망, ('20.5.21) LNG선 파이프라인 아르곤 퍼징작업 중 질식사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 시 추락·끼임 등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하는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5}명('12년)→5명→10명→6명→6명('16년)→6명→7명→8명→13명→3명('21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WANGJU) 2021

S A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

ECONOMY

7. 2 ^금 - 7. 4 ^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FAIR

기념행사

개막식/폐막식

전시행사

홍보관/상품관

부대행사

학술행사 지역연계프로그램 시민참여프로그램

온라인 박람회

미리 만나는 사회적경제 박람회 온라인 특별전 라이브 커머스쇼 BJ 박람회 랜선 투어

주최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리촉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산림청,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럽동조합협의회, 한국합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임팩트얼라이언스

주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지역추진위원회

사회적경제박람회 Q

www.socialeconomyfair.kr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무국 문의 062-385-8596

Healing

.

24, 第三十二

- 58 악덕 업주, 거기 섰거라! 현대판 홍길동 모범택시가 나간다!
- 62 행복하게 돈 법시다·상쾌한 출근길을 위하여
- **64** 일의 우선순위 매기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 66 일터에서 마주한 아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70** 나도 해볼까 유튜브! 유튜브 채널만들기 A to Z
- **72** Shall We Dance?
- 74 6월 영화·도서·전시 추천
- 80 #내일스타그램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벼랑 끝에서 발견한 전화번호







한 여인이 위태롭게 한강의 한 대교 위에 섰습니다. 생을 포기하고자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여인의 발치에는 한 전화번호가 보입니다.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단순한 문구와 함께 적힌 전화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결국 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죠. 그때 검은 모범 택시를 타고 등장한 김도기 기사(배우 이제훈)가 담담히 어떤 사연으로 복수를 원하는 지 묻습니다. 사연녀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잘 포장된 악덕 기업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선한 기업으로 포장되었지만, 내부에서는 온갖 인권 착취와 성적 유린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었죠. 의지할 곳 없던 그녀의 사연을 들은 우리의 모범 택시기사. 어떤 복수로 나쁜 사업주를 응징해줄까요?

ⓒ 여기서 잠깐!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마음 고생하고 계신가요? 서로가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각지에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강원 지역의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경기 지역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청 지역의 (사)한국이에이피협·광주전라·대구경북·부산경남 지역의 한국공인노무사회를 찾아보세요. 또 근로복지넷의 EAP 서비스를 통해서도 24시간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TEL. 1522-9000)

"젓갈을 사러 왔습니다만..." 바이어로 변신한 택시기사

"세상은 넓고, 악한 사람도 많다" 정의 실현을 위한 모범택시의 활동은 계속된다!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던 김도기 기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연의 주인공이 일했던 젓갈 공장으로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들어가 젓갈을 사고 싶다고 말하죠. 그것도 상당한 물량을 주 문합니다. 갑자기 들어온 대량 주문에 악덕 사업주는 중국산 젓갈을 몰래 들여 속여서 판매하려 하고, 계 속해서 물량을 늘리면서 중간에서 불법 수입을 막아 악덕 사업주를 곤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김도기 기사의 주문 물량을 맞추지 못한 악덕 사업주는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내게 되었네요. 동시에 온갖 불법 인권 유린을 고발해 사업주를 구속시키고, 학대당하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 근로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일하면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꿈과 희망을 짋밟히던 의뢰인에게도 드디어 희망이 생겼네요.



임금체불 문제 어떻게 어디에 고발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는 다양한 민원 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접속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해보세요. 컴퓨터와 모바일로 모두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고 나면 친절한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문의: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시원하게 사건을 해결한 모범 택시단의 앞에는 또 다른 의뢰인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불법 동영상 유포 웹하드 업체 회장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사망한 직원과 불법 촬영된 음란물 영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을 위해서 신입사원으로 잠입해서 불법 영상의 근거지를 폭파시키거나, 학교 폭력을 당한 고등학생 의뢰 인을 위해서 선생님으로 변신해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을 응징하죠. 사기 행각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소 중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업체의 사장을 유혹해서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세상은 넓 고 억울한 사람은 참 많네요. 모범택시는 앞으로 또 어떤 의뢰인을 만나 시원하게 복수를 펼칠까요? 많은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고 있는 드라마 <모범택시>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억울한 업무상재해와 질병,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근무 중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되셨나요? 그렇다면 가까운 공인노무사를 찾아가 산업재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각종 산재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서 근로자가 안전한 일 터에서 일하고, 산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분야별 민원-산재예방 섹션을 통해서 각종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의뢰하고 해결해보세요!

*문의: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안쪽인간의 단상〉



산재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식상 내 괴롭힘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거 알고계셨나요? 내 정신건강 예방 좀,,













전 눈에 띄지 않는 엑스트라인 척,

마치 배경에 흡수된 척하며 최대한 인기척을 없앱니다

보지도 않던 핸드폰을 주성주성 꺼니

그러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서로 깜짝 놀라는 척 발연기를 하고

상대방도 같은 생각이었구나하며 머쓱하게 인사를합니다

지금출근하시나봐요

01.01.2

언제부터 계셨어요?









교용노동부x안목인간

일의 우선순위 매기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업무를 해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는가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기 마련이죠. 업무의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른 업무 우선순위 세우기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간이나 일간으로 중요도, 긴급도에 따라서 업무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른쪽 표를 통해서 중요하고 급한 일이란 어떤 일인지 확인해보고, 일잘러로 거듭나 볼까요?

Work

● 중요하고 급한 일

업무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어떤 업무보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고, 그 결과가 핵심역량을 드러내거나 승진과 이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키업무가 되기 때문에 잘 처리해야 합니다. 큰 단위의 금액이오가는 계약이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준비나 고객사와의 미팅, 마감이 다가온 납품 관련 업무,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서작성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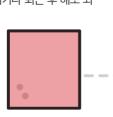
●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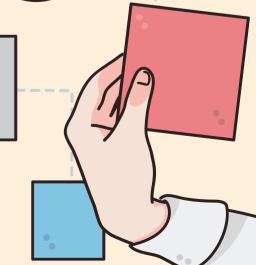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주로 해당하는 파트로 큰 업무 성과가 되지는 않지만,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상급자가 될수록 해당 파트의 업무는 가능한 효율적으로 다 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서 중 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 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 회신하기, 점심 식사 메뉴 선정, 교통편 예약하기 등이 있죠.

●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다른 파트의 업무가 모두 마친 뒤에 처리해도 괜찮은 활동입니다. 인터넷 서핑, 업무 외적인 인물과의 식사, 개인 SNS 업로드 및 댓글 달기 등이 해당하죠. 다음 날 출근해서 처리해도 되거나 퇴근 후 해도 되

는 사소한 일이지만 중요하고 긴급 한 일들의 시간을 빼앗는 활동입니 다. 따라서 업무 중에는 해당 파트 의 활동을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지만 잘 다루어야 하는 업무영역입니다.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큰 업무 성과가 될 수 있거나 추후에 영향력 있는 결과를 가져올 만한 파트입니다.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으로 독서나 외국어 공부, 레퍼런스 찾기, 업무 네트워킹 맺기, 운동 등이해당하죠. 긴급한 일을 타인에게 성공적으로 위임했다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해당 파트의 디테일을 챙기는 것이 훗날성공에 가까워지는 비법이라고 해요.

할릭 일터 고민타파 글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일터에서 마주한 아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 우리는 보람을 얻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 예상치 못한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터에서 다친 직장인 여러분,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물류센터에서 10년째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분류 업무를 총괄하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과로를 했습니다. 게다가 늘어난 근로자들과 부대끼다가 결국 코로나19에 걸려버렸고요. 지난주 함께 일하던 동료가 확진이 되면서 물류센터가 올스톱하게 되었고, 함께 식사하고 담배를 피우던 동료 7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모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버려서 가족들의 사회 활동이갑자기 모두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혹시 가족들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거하여 휴업급여 등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인 동료와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감염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 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확진된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하고, 사례에서처럼 비보건인력의 경우에는 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나 업무에 기인해서, ②고객이나 동료 등에 의한 바이러스 노출 등 으로 인해서 감염되어야 하고, ③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중에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인해 감염되지 않아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과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산재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 기타 해당 사유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례에서처럼 근로자가 회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근로자로 인해 감염된 가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가족들은 업무와 관련없는 일상생활 중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도 인정되기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 문제를 떠나 가족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지원, 근로자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계층(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고객의 폭언과 상사 주도하의 직장내 괴롭힘까지 더해지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6개월째 약을 타서 먹는 중이고요. 직장에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괜히 이상한 소문이 돌거나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갈까봐 따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점점 업무에 집중도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실수를 하고 혼나는 악순환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회사에 밝히고 산재 인정을 받고 잠시 쉬어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폭행이나 물리적인병명이 없다 보니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경우에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과 달리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현재 고객의 폭언과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직 장내 이상한 소문 등이 퍼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회복을 위 한 치료기간에 대한 배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가 희망하는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상담자는 ①고객의 폭언 사실에 대한 기록을 미리 정리하고, ②특히 고객의 폭언에 대해 회사에 고충을 신청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나 대처 의 어려움 호소가 있었음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담자는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 인사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의미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가 직장 상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우울증세나 공황장 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사 차원에 서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상기의 고객에 의한 폭언,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객관 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나타난 우울증, 적응 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의 인과관 계 판단이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는 고객의 폭언에 대해 회사에 고충 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신청할 필요가 있고(신청시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니 비 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사를 통해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 고, 이에 기초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 인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에 치료기간에 대한 병가나 휴직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동 기간 동안의 급여(70%)나 치료비 등 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한편 업무상 재해 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정상적인 근로가 곤란하다하 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 하청업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번 근무지를 변경해가며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했는데요. 지난 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다가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중상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원청은 이 책임을 하청에 묻고, 하청은 개인의 업무 과실로 이를 치부하고 현장의 문제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모든 병원비가 고스란히 제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따로 개인 보험도 들지 못한 형편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앞으로일도 못하게 될 텐데, 병원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적용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혜택을 받을 수 없 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특례 적용 으로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에 포함이 되었으며, ①이 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한 때에는 동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을 산재보험

가입자로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산재보 상을 받을 수 있고, ②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 장비로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지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하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후자의 경우에, 타워크레인 운전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근로자가 아니어야 하고, ②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전속성이 있어야하고, ③운전보조원 등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하고, ④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자이어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며(다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건 설업에서 수차례 도급에 의해 시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동 가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이나 이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재해자가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 적용에 따라 해 체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①공사현장의 발주자, 최초 원수급인, 소속된 하청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②위 내용에 기초해 자신이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고, ③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원수급인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산재보상을 신청하고, 근로자가 아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종전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상 산재보험 가입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에 의하든 당 연적용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직접 신청하여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있는 때에는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 여,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치료종결 후에 장 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직 5년 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 편이고 주로 자차로 직접 운전해서 업무를 보는 편인데요. 업무 시간 중 고객사에서 회사로 복귀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뇌출혈과 골절 때문에 입원 상태로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고를 업무 중 근무지 이탈로 이를 간주하고 산재 인정을 할 수 없으니 산재조사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외근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안 나가도 될 상황에 나가서 사고를 냈냐며 오히려 징계를 내릴 것이며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개인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데요. 부당하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사고를 당하 거나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 등이 별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법에 의한 산재보상의 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사용자의 사전 승낙이나 허가를 필요로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월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치료 등에 따른 요양급여, 추후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및 그후 30일이 경과

될 때까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의 사전 업무지시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장 자체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사례에 서처럼 평상시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에서 상담자는, ①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수행 중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재해자는 본인이 직접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의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③회사에는 출장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한보고서를 간략하게나마 작성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고, ④동시에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를 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사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당 재 해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징계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벌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재해자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보험 측과 자체적으로 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기 간을 연차로 처리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상담자는 사례와 같은 회사의 입장이나 조치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근로복지공 단에 문의하여 세부 진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추후 부당한 해고나 징계, 연차휴가 사용 강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 회 상담을 거쳐 그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자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호 힐링 **일터** 저녁이 있는 삶

나도 해볼까

유튜브!

유튜브 채널만들기 A to Z

직장인들 사이에서 요즘

"나도 유튜브나 해볼까?"라는
말이 유행하곤 합니다.
나만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영상 기획부터 동영상 업로드하는 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영상을 기획없이 촬영한다면 구독자의 신뢰도나 충성 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촬영을 나가기 전에 내가 꾸준히 잘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어떤 영상을 어떤 주기로 올릴지 계획하는 기획안을 작성해 보세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기획안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받아서 기획안과 구성안을 작성해보는 것도 좋겠 습니다. 채널 개설 시에는 다른 인기 채널과 겹치지 않 도록 채널명을 고안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STEP 2 동영상 촬영

글 권찬미

큰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채널 의 방향성을 정했다면 일단 휴대폰을 들고 집 밖을 나서보세요. 콘텐츠에 따라서 집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장소나 인물 등을 미리 섭외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장에서 즉석으로 인물과 장소를 보여주는 현장감 있는 콘텐츠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콘텐츠코리 아랩 등에서 무상으로 스튜디오나 장비를 렌탈할 수 있으니 초기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STEP 3 편집과 자막 넣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비바비디오, VITA, VLLO 블로부 터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영상 편집 프로 그램인 곰믹스, 뱁믹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많이 사용 하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에디우스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을 사용해보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센스있는 자막과 효과만으로도 내 채널만 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답니다.

STEP 4 썸네일 제작

조회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썸네일입니다. 눈에 띄는 썸네일만 잘 제작해도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물의 특징을 잘 잡아내는 이미지와 제목, 색감을 포토샵 등을 활용해서 제작해보세요. 유튜브 썸네일의 크기는 주로 해상도 1280X720px로 제작하는데요. 포토샵작업이 어렵다면 망고보드, 캔바 등의 이미지 제작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썸네일을 간 편하게 만들 수 있 습니다.

STEP 5 동영상 업로드

두근두근 드디어 업로드만 남았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내놓을 때도 요령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축적이고 이목을 끄는 짧은 제목을 잘 선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더 보기 설명란을 통해서 친절하게 영상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담아준다면 독자들의 충성도도 더 높일 수 있겠죠? 또 빠르게 필요한 정보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타임코드를 넣어서 구독자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상의 성격에 따라서 업로드 시간을 예약 설정해서 원하는 목표 구독자에게 노출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직장인들에게 내 영상이 노출되기를 바란다면 평일 저녁 6시 이후 등을 예약 시간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mark>힐링 일터</mark> 직장인 건강상식 글 권찬미





똑같은 풍경의 러닝머신 위를 뛰고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어 올리는 것에 신물이 나기도 하죠. 조금 더 재미있게 운동을 즐기고 싶나요? 줌바 댄스, 재즈 댄스, 방송 댄스, 폴 댄스, 라틴 댄스 등 재미있는 댄스들로 함께 운동해볼까요?



나도 이 구역의 아이돌 방송댄스

K-POP이 유행하는 요즈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에 맞춰서 멋지게 춤도 추고 운동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송댄스 학원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라면 방송댄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바 쁜 직장인들의 스케쥴을 고려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한 방송댄스 학원 강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요. 나아가 방송댄스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직접 강사가 될 수도 있답니다.



즉흥적인 리듬에 몸을 맡겨봐! **재즈댄스**

형식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고 싶다면 재 즈댄스도 좋습니다. 재즈댄스는 1910년 무렵 등장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전통있는 춤인데요. 일정한 형식과 틀 에 메이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동작으로 자신의 신체 를 표현하는 춤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에서도 많 이 볼 수 있어요. 모던 재즈, 아프로 재즈, 코믹 재즈 등 다양한 스타일의 재즈댄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분출 해 보세요.



팅커벨의 귀환 폴 댄스

일명 봉춤이라고도 불리죠. 수직 기둥 같은 폴을 이용해 유연성과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으로 상당한 체력과 근력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2000년대 국제폴스포츠연 맹이 출범한 이후에는 기계체조의 한 종목으로서 발전에 '폴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기도 했어요. 전완 근과 광배근 등의 근육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작을 소화하면서 피부를 마찰시키는 과정에서 셀룰라이트 제거도 잘 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같이 흥 폭발 타임 중바 댄스

피스니스 센터에 가면 한켠에서 여러 명이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신나는 음악과 힘찬 함성에 맞 춰서 함께 격렬하게 몸을 흔들고 있다면 줌바댄스일 가 능성이 높습니다. 줌바 댄스는 콜롬비아의 알베르토 베 토 페레즈가 창시한 피트니스 운동으로도 라틴 댄스와 에어로빅을 결합한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는데요. 남미 춤 특유의 격렬하고 열정적인 동작이 많아서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당신을 위한 영화





생과 사의 경계에서 더듬는 삶의 의미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오랜 세월 학교에서 음악 선생으로 살아왔지만, 스스로 재즈 뮤지션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주인공 조 가드너. 드디어 재즈 공연을 할 수 있는 대망의 공연 날, 그는 알 수 없는 공간에 오게 되 죠. 우연한 사고로 생과 사의 경계에서 영혼들이 만나는 세계로 와버린 그는 생 의 의지가 없는 영혼 22번을 만나게 됩니다. 시스템의 오류로 조 가드너는 22번

을 훈련시키는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지만 22번 영혼은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죠.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삶의 의지가 가득한 조 가드너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22번 영 혼. 과연 그들은 함께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상상을 벗어나서 현실이 된 모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매거진<라이프>에서 사진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월터, 상상력 이 뛰어난 월터는 회사에서 매번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업무 중에도 수 시로 공상에 빠져드는 모습은 다소 부적응자 같은 이미지를 불러일으켰 기 때문이죠. 한편 매거진<라이프>는 디지털화의 바람으로 폐간의 위기 에 처하고 잃어버린 마지막 호의 표지 사진을 찾기 위해서 월터는 뜻밖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조종사의 헬리콥터에 용감하게 올라타고 상어 떼와의 싸움에서 목숨을 건지고, 화산 폭발 현장을 거치면서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던 일을 실제로 체험하죠. 현실 이 된 모험 속에서 그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월터가 찾은 <라이프>지의 마지막 호의 사진은 어떤 사진이 장식될까요? 함께 영화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알 이즈 웰!

천재들만 간다는 일류 명문 공대 ICE에서 친구가 된 란초, 파르한, 라주. 세 친구는 함께 몰려다니면서 황당한 일들을 벌이는 것 같지만, 각자의 꿈을 찾아 나가는 여정에서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서로를 돕습니다. 서로 가 서로에게 '알 이즈 웰' 모든 것은 잘 될 거라는 주문을 걸어주면서 말이 죠. 2011년 개봉한 세 얼간이는 인도 영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요. 다소 코믹한 캐릭터와 사이사이 들어가는 뮤지컬적인 요소가 긴 러닝타임을 이기고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얼간이들의 황당한 세상 뒤집기 한판에 함께 뛰어들어 꿈과 열정을 불러일으켜 볼까요?

우리의 아픔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당신이 꼭 읽었으면 하는 소설

김재영 윤고은

장강병





아픔이 길이 되려면



타인의 아픔을 기록한 단단한 수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사회역학학자 김승섭 교수의 저서로 '사회적 상처가 우리 몸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연구의 발자취를 담은 책입니다. 산업재해로 아픔을 겪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례부터 사회적 혹은 자연적 재난으로 아픔을 아로새긴 사람들을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사람을 아프고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치로서 증명해 낸 사회과학 서적이죠.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지만, 일반 독자가 읽기에도 잘 엮여 있어서, 발간 당시 언론과 독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어요. 혐오발언, 구직자 차별, 고용불안, 참사 등 사 회적 상처는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김승섭 교수의 연구 데이터와 함께 알아볼까요?



일하는 우리들의 짠내나는 이야기

땀 흘리는 소설

N포 세상에 을로 살아가는 청춘들 의 이야기를 김혜진, 김세희, 김애 란, 서유미, 구병모, 장강명 등 젊 은 작가들의 시선으로 엮은 단편 소설집입니다. 책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죠.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 방송 BJ, 공무원 시험 준비생, 카드사콜센터 직원, 외국인 이주 노동자, 알바생 등 일하는 청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8가지 이야기는 각각 일의 가치, 직업 선택과 직업 윤리, 청년 실업, 여성 노동, 감정 노동, 이주 노동, 산업 재해, 해고에 대해서 다루며 '일과 노동'에 대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재난의 시대를 바라보는 여덟가지 시선

기억하는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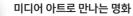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재난으로 일컬어지는 이때. 강영숙, 김숙, 임성순, 최은영, 조해진, 강화길, 박민규, 최진영 작가가 재난에 대한 주제로 짧은 소설을 써서 엮은 소설집입니 다. 책에는 삼풍 백화점 붕괴, 태풍 피해. 구

제역 유행, 산업 재해, 세월호 침몰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각종 불가항력적인 재해에서부터 인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잊고 싶지만, 기억해야 하는 다양한 재난을 바라보는 여덟 작가의 시선을 따라 재난 시대에 무너져가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찾아봅니다.



무기력한 유월엔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 아트가 제철





빛의 벙커 <모네, 르누아르…샤갈>

지난해 빛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클림트의 기획전으로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호평을 받았던 빛의 벙커 전시가 새로운 작가의 기획 전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색감과 부드러운 붓터치로 사랑스러운 그림들을 선보인 모네, 르누아르, 샤갈 등 화가들의 작품들인데요. 이번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서관람객은 예술적 창조성과 모더니즘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약 20명에 달하는 예술가들의 명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간: 2021.04.23(금) ~ 2022.02.28(월)



시공을 초월한 자연을 만나다

아르떼 뮤지엄 <시공을 초월한 자연>

여러 테마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만날 수 있는 제주 애월읍에 위치한 전시입니다. 코엑스의 WAVE 작품으로 유명한 세계 수준의 디지털 디자 인 컴퍼니 d'strict가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관인데요. 과거 스피커 제조 공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10개의 다채로운 미디어아 트 전시관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미디어 폭포와 초대형 파도, 제주의 풍

경과 명화를 담은 빛의 정원, 끝없이 펼쳐진 초현실 해변, 참여형 초현실 사파리, 달콤한 음료와 함께 곁들이는 향긋한 티바(Tea Bar)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간: 연중무휴



상상속 자연으로의 여행

라파우자 뮤지엄 <미디어 아트展 자연 환상곡>

핫클래식, 재즈, 전통 음악, 실엄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미디어 아트와 어우러져 현실감을 극대화한 전시로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자연과 사람의 상생, 재생과 부활의 상징 바다, 치유의 숲이 주는 행복, 살아있는 자연의 감정 분노, 사계절이 주는 무한의 행복 등 각 테마에 따라 구현된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파도, 오로라,

꽃의 향연 등을 미디어 아트로 만나보고 오감을 깨워보세요!

기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휴관

#내일스타그램

내가 일할 때 꼭 필요한 것

월간내일 편집실로 날아온 독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독자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 호에 보내주실 사연은 **회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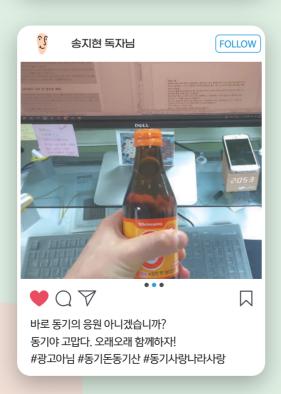
(ex-탕비실, 안마의자가 있는 휴게실, 도서관, 화장실, 식당, 옥상 등)입니다.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과 우편이나 메일 lineq@korea.com로 독자 사연*과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선정된 사연자에게는 월간내일 굿즈를 드립니다.

* 독자 사연 메일 응모 시 '성함/연락처/주소/우편번호'를 모두 정확히 기입하셔야 선물 배송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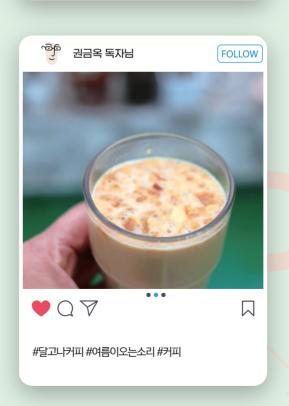




평소 환경 보호를 위해 텀블러와 머그컵을 적극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 환경과 지구를 생각해서 종이컵 사용을 자제해요.











-'블퀴즈은데블뤼'스 '다른그림찾기' 편





퀴즈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업서로 제출시 업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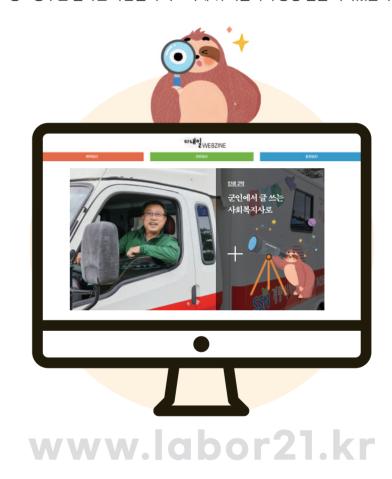
5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김정실 / 배진아 / 조홍창 / 김영애 / 최선희 / 박영경 / 이지현 / 정해영 / 박선우 / 김유택



〈윌간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 ①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업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 **②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 **3 모바일 앱진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검색 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